



지난 3월 MS 본사에서 만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왼쪽)과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가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SK텔레콤

박정호 SKT 사장, 나델라 MS CEO와 만남

“5G+클라우드 ‘게임 체인저’ 선보일 것”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양사는 스마트팩토리 등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추진하고, MS 오피스365에 SK텔레콤 상품·서비스 결합 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MS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JIP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JIP는 SK텔레콤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말한다. 박정호 사장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말 미국 레드몬드 MS 본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와 미팅을 가졌다.

MS는 2014년 사티아 나델라 CEO 취임 이후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애저는 현재 전 세계 140개국에 제공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월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 ‘메타트론’의 개발과 업데이트를 애저 상에서 진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될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사는 스마트 팩토리 등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양사는 SK텔레콤의 AI 플랫폼 ‘누구’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플랫폼 ‘코타나’의 역량을 결합해 AI 스피커, 기업 솔루션 영역 등에서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강자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안전’ 인증받아

SAMSUNG Exynos Auto

글로벌 차 반도체 업체 경쟁력 ↑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도

삼성전자가 전장 반도체 기능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13일 독일 TÜV 라인란드에서 ‘ISO26262 기능안전관리(FSM)’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ISO25252는 차량용 반도체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 규격이다. 2018년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확대에 따라 가이드 라인을 추가했다.

삼성전자의 전장 반도체가 안전함을 인정 받았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기

능안전을 반도체를 개발해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장 사업을 4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한 후 전장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장 반도체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를 론칭했으며, ‘16Gb LPDDR4X D램’과 ‘256GB eUFS’ 등을 출시했다.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ISO 26262 외에도 자동차 품질 경영시스템 ‘IATF16949’와 ‘AEC-Q100’ 등 규격을 만족하며 제품 안정성을 꾸준히 높여왔다.

엑시노스 오토 V9은 독일 자동차사인 아우디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차세대 모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생산을 수주한 것

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포테인먼트에서 자율주행 등 전장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TÜV 라인란드 마누엘 디에즈 글로벌 매니저는 “삼성전자는 자동차 회사들의 기능안전 요건에 맞는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며 “업계의 기능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차량용 반도체 ISO 26262 인증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부품플랫폼사업팀 한규한 상무는 “ISO 26262 인증을 바탕으로 반도체의 기능 안전 확보는 물론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서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언제 어디서든 끊김없는 ‘5G’ LG U+, 장애 대응체계 구축

서울·수도권 네트워크부터 적용

LG유플러스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고객들이 고품질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5G 기지국과 중계기, 통신국사를 연결하는 광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위치와 원인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광선로감시시스템을 서울과 수도권 5G 네트워크에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수도권에 적용을 마치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으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는 5G 중계기와 기지국, 통신국사 등을 거쳐 콘텐츠 등이 있는 서버로 전달된다.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가 다시 반대로 스마트폰으로 전달된다. 광선로는 이들 장비와 국사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기 한다. 이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고,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치를 곧바로 파악해 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광선로감시시스템은 5G 중계기와 기지국, 통신국사간 광선로와 함께 인터넷과 전용회선 서비스에 사용하는 유선망 상황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할



LG유플러스 직원이 광선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수 있다. 광선호 파장 분석을 통해 어디서 광선로 이상이 발생하던 10미터 이내 오차 범위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광선로에 단선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단선 지점을 찾기 위해 운영자가 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국사에 출동해 각 회선별로 광선호 값을 측정해 수습분 이상 소요됐다. 이번 광선로감시시스템 도입으로 개별 광선로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해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시스템을 중소기업 유비쿼스, 코위버 등과 함께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Wenger®

Swiss Made

Watches

125

SINCE 1893

A SWISS COMPANY

WENGER®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